P3-33

학교급식 영양사의 식생활 태도에 따른 영양소 섭취 실태

윤현숙.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식생활태도가 영양소섭취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원지역과 경남지역 학교급식 영양사 493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태도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생활태도의 평균점수는 강원지역 영양사가 100점 만점에 68.5점, 경남지역 영양사가 69.4점으로 두 지역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식생활태도 점수분포는 강원지역 영양사가 양호함에 42.9%, 경남지역 영양사가 우수함에 37.5%의 높은 분포를 보여 두 지역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전체평균을 보면 양호에 36.9%, 우수에 33.5%, 불량에 29.6%로 나타났다.
2. 식생활태도별 영양소섭취상태를 보면 두 지역 모두 식생활태도가 좋을수록 영양소섭취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01$) 권장량에 미달되는 영양소가 적게 나타났다.
   식생활태도 불량군은 에너지, 칼슘, 철분, 비타민B_1을 권장량의 73-86%수준으로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으며, 양호군은 철분과 비타민B_1은 95-99%로 권장량에 근접하게 섭취하고, 에너지, 칼슘은 79-91%로 부족되게 섭취하고 있는 반면 우수군은 불량군과 양호군이 부족한 칼슘, 철분, 비타민B_1은 100-110%로 권장량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에너지를 부족하게(강원도 87%, 경남 85%) 섭취하고 있었다.
3. 두 지역 모두 모든 영양소의 INQ가 1.15-2.41로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태도별 INQ를 보면 강원지역에서는 단백질, 인, 철분, 비타민B_1, 비타민B_2, 나이아신이 불량군에 비하여 양호군과 우수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P<0.01$), 경남지역에서는 모든 영양소가 불량군과 양호군에 비하여 우수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P<0.001$). 그리고 불량군의 경우 부족했던 칼슘, 철분, 비타민B_1의 INQ가 1.11-1.18로 나타나, 에너지섭취를 100%로 증가시키면 이들 영양소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4. 두 지역 모두 모든 영양소의 NAR의 분포가 0.80-0.99, MAR은 0.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활태도별 NAR을 보면 강원지역에서는 비타민A와 비타민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NAR이, 경남지역에서는 비타민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NAR이 식생활태도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0.01$-$P<0.001$), MAR도 높게 나타났다($P<0.001$).
5. 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식생활태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P<0.01$) 식생활태도가 좋을수록 영양소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만도와 영양소섭취, 비만도와 식생활태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3-34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급식의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 실시 현황

윤현숙*, 이경화.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영양은 인간의 기본행동과 정신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며, 특히 학령기의 영양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성장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주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식단구성에 따른 영양 공급과 아동들의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나은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초등학교의 영양사 350명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의 가정식에 대한 영양조사 실시율은 19.0%, 기호도 조사는 연 1회가 62.0%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영양사 경력 6년 이상에서는 '업무가 많아서'를 들고 있는 반면, 경력 3-5년에서는 '업무가 많아서'(54.2%), '하기가 번거러워서'(26.0%)를 들고 있었고, 경력 1-2년에서는 '업무가 많아서'(56.1%), '평가방법을 몰라서'(18.2%)를 높게 들고 있어 경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2.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스턴트 식품으로는 맛살(54.3%)과 햄(28.7%)이였으며, 사용빈도는 월 3회 이하(64.3%)와 주 1회(26.6%)로 나타났고, 자주 사용하는 냉동식품으로는 냉동만두(78.0%)이였으며 사용빈도는 월 3회 이하가 70.6%, 주 1회가 21.2%로 나타났다.
3. 김치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율은 경상남도가 69.6%, 울산광역시가 20.3%로 나타나 두 지역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01$) 학력이 높을수록 ($p<0.05$), 관리 학생수가 많을수록($p<0.001$) 직접 만들지 않는 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영양교육 실시율은 관리학생수 401-800명인 경우는 83.0%, 1501명 이상인 경우는 100%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실시 방법은 가정통신문 이용이 48.2%이였으며 교실지도는 2.6%에 불과 하였다. 영양교육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은 영양사 경력 1-2년과 6년 이상에서는 '바람직한 식습관'이 각각 73.1%, 70.0%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력 3-5년에서는 '바람직한 식습관'54.5%, 영양소의 중요성 25.8%로 나타나 경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5. 영양교육시 교사와 협의하는 율은 '가끔 한다'가 39.9%, '전혀 하지 않는다'가 58.5%로 나타났으며, 협의 내용은 '건강 및 수업태도' 44.1%, '가정환경' 26.0%로 나타났다.